

## 통신산업 경쟁 도입과 관련된 전략적 이슈

林 喆 壽

新世紀通信 企劃室

### I. 서 론

1980년대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는 길고 열띤 논쟁끝에 장거리 전화의 설비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국 PTO(Public Telecommunication Operators)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켰으며 1990년대 들어서 다른 OECD 국가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 현재 모든 OECD 국가들의 일반 사용자용 장비(CPE) 시장은 필수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은 네트워크 장비, 이동통신, 패킷교환 데이터서비스 시장에서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PSTN에서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설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PTO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WTO 체제하에서 바야흐로 전세계는 통신산업의 자유경쟁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신속하게 자유화를 채택한 국가들은 통신장비업체, 서비스 사업자, 통신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국내시장의 급속한 확장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경쟁력을 갖춘 외국 업체들의 강력한 도전에 따라 자국의 국내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통신 시장이 경쟁체제가 되어야 하는가? 독점체제의 PTO는 새로운 서비스, 비용 인하등의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할 수 없는가? 그리고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가격을 낮추거나 재조정할 수는 없는가?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실제 경험은 확실히 경쟁이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민영화이상의 경제적이익을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소유의 PTO를 민영화하는 것도 경쟁 지향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본 고에서는 주로 이동통신 분야에 초점을 두고 통신시장 경쟁도입의 현실성과 보편성을 조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통신 인프라와 관련된 구조 조정, 규제뿐만 아니라 경쟁의 도입과 관련된 중장기 전략적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통신산업에 있어서 경쟁체제의 효과

타 산업부문의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경향이 통신부문의 국제화, 민영화 및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 경제에서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경쟁 범위가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1]에 따르면 이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두 그룹의 사회경제적 구조, 제도적 요인, 통신산업의 발달정도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규모가 적고 덜 발전된 국가일수록 경쟁과 네트워크 이용자에 대한 투자의 범위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 1. 통신 인프라의 경쟁 저해요인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경쟁도입을 저해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러한 국가에서는 일인당 GDP와 최종 소비지출 및 인구측면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이들 지역에서 2개 혹은 그이상의 경쟁적 시설투자에 재정적, 경제적 장벽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소규모 주변부 경제의 산업구조로 인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의 통신수요 등으로 최종 소비지출 수요가 낮은 수준임을 들 수 있다. 세번째로 비용에 대한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들면 대부분의 통신 후진국의 경우 산악지형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에 의해 부가되는 추가적 비용도 정책결정 논의시에 충분히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신시장에 대한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 접근방법에 따른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합리적 경제인'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한다면, 위에서 말한 특성들로 인하여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결정에 관하여는 저개발국들에 대한 투자가 그리 유망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통신사업자에게 있어서 이들 지역은 더 높은 소득과 인구밀도를 가진 지역에 비해 투자의 고위험, 저수익 지역으로 판단될 수 있다.

### 2. 경쟁체제의 효과 : 이익과 비용

통신 산업의 경쟁도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익들을 얻을 수 있으며, 이들 이익들에서 PTO는 시장의 상실에 따른 규모의 경제 손실은 물론 경쟁환경에서 요구되는 규제와 조정의 비용을 축소 또는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신기술을 사용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 경쟁자들은 현재의 PTO보다 훨씬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실제 PTO로 하여금 그 설비 및 운영비용을 낮추게 할 것이다.

#### (1) 서비스 가격인하 및 다양한 서비스

[2]에서 제시한 최근의 OECD 자료에서는 1990년 이래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비경쟁 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보다 전체적으로 통신서비스 가격이 훨씬 많이 인하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일반 사용자용이나 기업은 물론 고정요금(Fixed Charges), 사용 요금(Usage Charges) 모두에 적용된다. 장거리 전화서비스인 경우, 경쟁체제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들 중에서 일본은 1985년과 1992년 사이에 50-55% 인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은 州間 전화요금이 1984년 AT&T의 분할이후 40% 이상 저렴해 졌으며, 다양한 신규 서비스들이 개발 되었다.

#### (2) 통신서비스의 이용 증가

소비자들은 가격의 인하에 대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든지, 다른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등으로 반응을 하게 마련이다. 미국의 경우 州間 장거리전화와 800 무료전화의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 서비스 가격은 추가 인하됐다. 더우기 통화율은 자동응답기, 팩시밀리, 무선 전화, 페이지, 셀룰라 전화, PC등과 같은 장비의 혁신과 가격인하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sup>[3]</sup>

#### (3) 통신부문의 투자 증대

경쟁체제의 도입은 전체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확산효과를 가진 통신부문의 투자를 증가시킨다. 미국에서 설비시장의 경쟁체제는 광케이블 망과 장거리전화 망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다. <sup>[4]</sup>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보면 장거리사업자들이 구축한 광케이블망의 연장은 1985년과 1990년 사이에 339%가 증가하였으며, 현재의 RBOC들과 LEC

들이 미국 장거리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1995년과 2000년사이에 매년 90억 \$의 설비투자를 해야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4) 타산업의 성장과 생산성 증가 효과

통신산업에 있어서 경쟁의 도입은 전 경제에 걸쳐 경제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저렴한 가격, 폭넓은 이용가능성, 다양한 서비스로 통신은 보다 비싼 투입요소들을 대체할 것이며 교섭비용을 줄이고 타산업의 혁신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는 생산성의 증가와 보다 높은 산출을 가져올 수 있고 일부의 경우 고용창출도 가능하다. 통신의 최대 이용자중의 하나로서 금융/보험업계, 운송업체, 오락분야의 기업들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전 경제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sup>[5]</sup>, 800번 무료서비스에 대한 비용 인하와 용이한 접속으로 카탈로그 판매업자들이 급증하였고, 네트워크화된 POS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조회를 신속히하고 원가 비용을 낮추고 있다.

3. 경쟁의 비용과 지연의 비용

(1) 경쟁의 비용

물론 경쟁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실질적인 비용과 문제를 가진다. 즉, 상호접속 조건과 절차의 집행비용, 경쟁자 규제에 따른 행정비용, 독점체제 PTO시장과 고용의 손실, 정부의 통신부문 통제력 약화등이다. 서비스 시장과 설비시장에서의 경쟁자들과 PTO들 사이에 운영가능한 상호접속 협정이 필수적이다. 최근 EU의 위촉을 받아 수행한 WIK/EAC 연구결과<sup>[6]</sup>는 현재 상호접속의 기술적 가능성은 대부분의 네트워크 형태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이의 실행에는 항상 상업적으로 합의되고 규제를 강제할수 있는 협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접속 협정은 일단 체결되면 그자체로 신규진입의 장벽을 줄이며, 통신부문의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2) 지연의 비용

현재까지 설비시장의 경쟁도입이 기존의 조직과 관계에 미친 혼란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금전적이든 비

금전적이든 경쟁의 비용은 매우 높았으며, 이 비용은 주로 PTO들과 이들의 공급자 및 소비자들에게 집중된 반면 경쟁의 이익은 전체 경제로 확산됐다.

경쟁도입의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으로는 첫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인상과 혁신 지연, 둘째 통신부문의 현대화에 대한 투자 위축, 셋째 통신사용자들의 생산성 증가 둔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성장 둔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지연 비용 요소로는 독점 PTO와 그 공급자들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다른 경쟁체제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이내믹한 변화로부터 고립 그리고 경쟁력 회복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III. 외국사에 대한 소유권 제한 문제

기본통신의 개방은 오래동안 계속돼온 정책적 관심사항 이었다. 다른 어느 산업보다 통신산업은 소유권에 관한 규제가 보편적으로 인정되었고, 이는 GATT나 NAFTA가 기간 통신업의 개방만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간통신 분야에서 자국외의 해외 통신사업자에 대한 소유권 규제라는 이슈를 검토,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요인에 근거한 자국의 사업자에 대한 자국 소유권 제한 논의는 소유권 제한이 소기의 목적 달성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점과 다른 정책이 더 적은 비용으로 소망하는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는 점에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 역시 통신사업의 세계화와 WTO 기본통신 협상에 따른 세계통신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3차에 걸친 구조 개편에의해 우리나라의 진입 규제체도는 타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 소유권 규제에 관한 주권 논의 - 비경제적 요인  
자국의 소유권 제한에 관한 비경제적 요인에 의

〈표 1〉 국가별 진입규제 제도

국 가	사업자수 제한	사업 영역 제한	허가 제도	설비 설치 승인	주과수 배분
한 국		◎	◎	◎	
프 랑 스	◎		◎		◎
독 일	◎		◎		◎
일 본		◎	◎		◎
캐 나 다			◎	◎ <sup>1)</sup>	◎
영 국			◎	◎	
호 주			◎	◎	
스 웨 덴			◎	◎	
미 국			◎	◎ <sup>2)</sup>	◎
뉴질랜드					◎

주 : 1) 음성서비스 경우에만 설비승인 필요

2)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

거한 주장은 자국 주권에 관련된 것이 대표적이며, 일례로 캐나다의 통신자문 위원회는 다음과같이 말하고 있다<sup>8)</sup>. “통신은 미래의 새로운 산업사회의 인프라로 통신을 통한 정보의 유출입 통제가 한 국가의 정체성(Identity)과 독립성을 좌우할 것이며, 따라서 다음 세대의 캐나다 주권은 통신분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통신산업을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서는 안된다.” 마지막 문구를 통해 우리는 이 주장이 경제성에 바탕한 논의가 아닌 비경제적 요인에 바탕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자국의 소유권 제한은 통신의 국내 독점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주권과 관련된 또다른 소유권 제한 논의중의 하나는 통신망이 국방과 직결되며, 국가 위기상황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간과하고 있다<sup>9)</sup>. 첫째, 군대는 원래 독자적인 통신망을 갖추고 이를 운용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통신망은 해당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유화할 수 있는 많은 기초 설비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현재 통신은 위성통신등 점점 다양한 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다른 주체에 의해 운용되므로 동시에 통신이 마비되는 사태는 예상키 어렵다.

## 2. 소유권 규제에 대한 경제적 논거

규범 경제학(Normative Economics)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할 때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이 효율적인 산출을 내지 못할 경우이다. 국제 교역과 투자관점에서 잠재적인 정부개입 조건으로 확인된 두가지는 1) 경제 지대(Economic Rent)와2) 외부경제(External Economics)의 존재이다. 이 양자중 하나 혹은 모두 충족되면 정부의 개입은 해당국 국민에게 더 나은 수익을 가져오게 된다.

### (1) 자국의 소유권 제한과 경제 지대(Economic Rent)

일반적으로 경제 지대는 주로 최초 투자(진입)로 인해 발생하며, 어떤 생산요소에 의해 공급되리라고 기대되는 최소한의 서비스 양을 초과하는 해당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이다. 통신산업에 있어서 자국의 소유권 제한을 이와 연결해 설명하는 이유는 통신이라는 생산물을 최초 제공한 자국 통신업자가 가져야할 경제지대에 대한 부분을 새로 진입하는 자국의 통신업자가 부분적으로 누리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이다. 그러나 경제지대를 차지하기위해 자국의 소유권 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그 목적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국의 통신업자가 자국 통신업자에 비해 더 효

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되면 통신사업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해 유출되는 경제지대 만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여러이유로 인해 사업권 경매가 불가하다면 자국의 사업자가 누리는 경제지대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물론, 높은 세금부과는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경매를 통한 경제지대 보전이 더 타당한 방법이다.

## (2) 외부경제(External Economics)

외부경제란 제 3자에 의해 실현된 경제적 혜택을 말하는데, 통신산업에서는 이러한 외부경제의 여러 형태가 확인되었다. 특히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네트워크 사용 원가를 훨씬 초과하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망이 확장될수록 혜택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외부경제는 통신사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R&D나 혁신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통신업자의 활동에 따라 외부경제에 따른 경제적 혜택의 유출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반면, 이러한 외부 경제가 통신업자의 국적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외부경제에 따른 경제적 혜택의 유출은 통신업자의 소유권 형태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신산업에 있어서 자국의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며, 그러한 규제 정책은 의도한 목적을 실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국 통신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득보다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 IV. 통신산업에서의 전략적 제휴 및 국제화

미국의 전기통신업계에 있어 1994년은 많은 기업합병과 제휴가 이루어졌고, 그 중심이 된 것은 차세대 전기통신 서비스로 불려지는 PCS의 등장이다. 최근 셀룰러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으로 지금까지 Wireless 서비스 시장과는 관계가 없던 장거리 전화회사, CATV 회사가 PCS 서비스 시장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가속화 되었는데, 그 시작은 AT&T와 McCaw 셀룰러 통신과의 합병이며

이를 계기로 PCS 서비스의 주파수할당 입찰에 참가 여부를 신고하는 기간인 1994년 10월말까지 전기통신 사업자의 Wireless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한 제휴·합병이 계속 발표되었다.

### 1. 발표된 제휴·합병 상황

미국내 방송·통신업체간 대대적인 기업인수·합병(M&A) 작업이 본격화 되었다. 현재 AT&T, MCI, 스포린트 등 3대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연간 7백억달러 규모의 미국장거리 통신시장에는 이미 나이벡스와 벨 애틀랜틱이 양사를 통합해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또한 미국의 MCI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합작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나 월트디즈니사의 캐피털 시티즈/ABC 인수, 웨스팅하우스사의 CBS 인수가 이루어 졌으며, 에어터치(ATC)와 US West사는 셀룰라 및 PCS 사업에서의 제휴/합병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5-10년간 미 통신관련 업체들간 인수·합병이 한차례 지나간뒤 국경을 초월한 통신산업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제휴·합병을 초래한 주요 이유

#### (1)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효과

통신서비스의 경우, 비용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수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 서비스는 전송 기지 장비와 같은 공통의 자원을 공유한다. GSM과 DCS 1800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범위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셀룰라장비 및 안테나 설치 구조물
- 셀룰라망과 유선망 접속 설비
- 망설계/영업/운용 전문인력
- 네트워크 장비와 네트워크 인프라
- 셀룰라 전화 서비스에 따른 회계와 요금체  
구, 관리방법 등을 공유.
-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 (2) 신규서비스 투자에 따른 위험분산

PCS와 같은 신규사업 참가에는 전과 사용의 라이선스 취득에 필요한 입찰료외에 PCS망 구축비

용을 필요로 하며,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3) 유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위해 이음매없는 전국적인 무선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McCAW 셀룰라 통신은 SBC 등과 합쳐서 『Cellular-One』이라고 하는 브랜드명으로 로밍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으며, SBC를 제외한 6개지역 셀룰러 회사, GTE등의 거대전화회사 2개사, 캐나다의 셀룰라회사 12개사는 공동으로 『Mobilink』라 불리는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기 타

거대 브랜드에 대항하기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써 합병·제휴의 도미노 현상외에 장거리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end-to-end의 One-stop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셀룰러 전화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시내 전화망을 건너 뚫으로써 시내 전화회사에 지불하고 있는 장거리 통신비용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접속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요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전화회사 입장에서는 전 미국의 셀룰러망 구축에는 현재 네트워크가 없는 지역은 PCS 망으로 대체하고, 그 외 PCS 서비스가 장래 PCS 서비스의 경쟁이 될 수 있으므로 타사에 선수를 쳐서 진출하기 위해 제휴·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3. 국제화

통신산업 분야에서 국제화의 특징 및 유형을 요약/정리해보면 표 2/3과 같다.

세계 통신시장의 주요 흐름인 규제완화, Globalization, 통신사업자간 제휴등의 경향에 비추어볼 때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 선진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내 통신사업자들 (KT, KMT, DACOM 등) 의 해외진출이 매우 활발한 상태이다. 이는 국내 통신시장의 한계와 함께 통신사업에 의 규제완화로 인한 대기업의 참여, 통신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등 갈수록 치열해지는 통신 산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표 2〉 국제화의 특징

구 분	내 용
규제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출대상국의 외국기업 유치, 유치방법등에 대한 규제내용에 따라 국제화의 정도,방법이 달라짐.</li> <li>● 진출코자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약할수록 국제화가 촉진되는 경향.</li> </ul>
경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간 경쟁이 심하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체제와 정보체제가 필수적임.</li> </ul>
사업자간 제 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단독출자의 형태는 찾아보기 어려움.</li> <li>● 상대국의 규제내용, 위험분산, 전략과 자원의 적합성 판단.</li> </ul>

V. 결 론

통신산업은 그 투자 특성상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오랫동안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초기에

는 전화회사의 지역편재로 인해 정부조직에 의한 관리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기본통신 분야에서 독점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복·과점에 따른 경쟁이 도입되었고 더 나아가 자국의 통신 사업자도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통신사업에 참여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통신산업에서

〈표 3〉 국제화의 유형

구 분	내 용
시장의 불력화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FTA 지역의 완벽한 네트워크 구축</li> <li>● 미국, 캐나다 : AT&amp;T/Unitel, MCI/STENTOR, Sprint/Call-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T&amp;T/Unitel : AT&amp;T 20% 자본참여 → 실질적 운영에 참여</li> <li>- MCI/STENTOR : 서비스 공동개발, 가입자 요금처리</li> <li>- Sprint/Call-Net : 기업명, 서비스명을 "Sprint" 브랜드로 통일</li> </ul> </li> </ul>
해외진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구소련, 동구권등 공산권의 개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력 부족으로 외국사업자 유치</li> </ul> </li> <li>● 중남미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진출노력</li> </ul>
국제 Outsourcing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적 제휴 : Concert, World Partners, Eunetcom, Unisource</li> <li>● 국제통신분야 규제완화 진전 → 국제 통신시장에서 생존 노력</li> <li>● 목표시장 : 다국적 기업의 기업망</li> </ul>
신규사업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과 통신의 결합등과 같은 기술진보와 통신사업의 영역의 붕괴등과 같은 정책 변화가 주요인 임.</li> <li>- RHCs와 영국 CATV 사업자간 제휴 및 합병.</li> </ul>

의 경쟁의 도입은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전세계적인 조류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둘러싸고 각 나라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통일된 방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통신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상황 인식에 대한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96.4월까지 진행될 WTO의 기본통신 협상(NGBT) 결과에 따라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및 추가적 개방 약속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양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고에서는 자국의 사업자를 포함한 경쟁의 도입과 관련한 전략적 주요 이슈들을 경쟁체제의 잇점, 경쟁도입의 지연에 따른 비용 문제, 소유권 문제 및 사업자간 제휴·합병 문제에 까지 연결시켜 살펴 보았다. 경쟁도입 및 규제완화 정책에 의한 이득이 비록 명백하다고는 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규정 역시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에서 정부는 상호접속, 요금, 허가료등에 관한 협상에서 기준을 설정, 협상을 주도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과 서비스의 영역 구분을 철폐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서 사업자들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해 가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Paschal Preston,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19, No.4, pp. 253-271, May/June 1995.
- [2] Walter S Baer,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competition-The costs of delay",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 19, No.5, pp. 351-363, July 1995.
- [3] Mitchell, Bridger and Donyo Tenzing, "Utilization of the US Telephone Network", ME-436-EAC/WIK, RAND European-American Center for Policy Analysis, Santa Monica, CA., 1984.
- [4] Garfinkel, Lawrence, "The growth of competition in the US long-distance industry",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17, No.5,

- pp. 323-330, 1993.
- [5] Gleckman, Howard, "The technology payoff", Business Week 14, pp.57-68, June 1993.
  - [6] Arnavak, Jens, Mitchell, Bridger, "Network Interconnection in the Domain of ONP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Nov. 1994.
  - [7] FCC, Bureau of Labor Statistics, Company Annual Reports, 1991.
  - [8] Consultative Committee on the implication of Telecommunications for Canadian Sovereignty Report Supply and Services, Canada, Ottawa, Vol.1, No.2, 1979.
  - [9] Steven Globerman, "Foreign ownership in telecommunications-A policy perspective",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19, No.1, pp. 21-28, 1995.

저자 소개



林 喆 壽

1981년	3월~1985년	2월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학사
1985년	6월~1986년	7월	(주)데이콤 정보통신연구소 근무
1986년	8월~1988년	5월	미국 Indiana Univ. 전산학 석사
1988년	6월~1994년	7월	(주)아시아나항공 정보통신부 근무
1991년	9월~1995년	8월	서강대학교 전산공학 박사
1994년	8월~현재		(주)신세기통신 기획실 과장